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진승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는 유일한 기관이지만 모든 국민들이 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정부 정책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추진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반대운동을 펼치고 선거에서는 투표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가 약 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4대강 개발계획의 예를 보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인당 연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약 13%(1/8)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수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강수량의 대부분이 장마기에 집중되어 빈번한 홍수를 유발하고 갈수기에는 강바닥이 보일 정도로 메말라 강물은 수량 부족으로 오염되어 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4대강’ 갈등 해법은 없나

4대강 개발계획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다른 사업에 비하여 환경영향평가가 단기간에 걸쳐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정반대의 의견이 존재하는 이유는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상호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축적한 자료를 통하여 4대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를 수가 있는가? 4대강 개발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크게 사업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반대와 계획의 결정과정에서 정당한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판단에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가까운 장래에 물 수요량이 크게 증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량 확보를 위하여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한 강바닥의 준설과 수중보의 건설은 오히려 수질오염의 유발과 생태계의 파괴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홍수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4대강의 본류에서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이 상류와 지류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차적인 문제점으로는 막대한 비용과 과급 효과가 큰 4대강 사업이 소수에 의하여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4대강 대책은 예산의 낭비이며 오히려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4대강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보유한 기초통계와 반대론자들이 보유한 기초통계가 다르다면 양쪽은 앞으로도 계속 어느 통계가 옳은지에 대한 진실게임은 계속할 것이며 찬반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찬성과 반대 측은 용수의 현재 공급능력과 향후의 수요전망, 4대강의 수질오염 원인과 오염현황, 홍수의 원인과 피해상황 등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통계와 작성방법을 공개하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초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4대강 개발계획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약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갈등조정 경험 있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부를 포함한 10개 단체 이내의 중요한 찬성과 반대 그룹 대표들이 참여하여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 홍수 방지, 수질개선 등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중요 주제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만약 정부가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여 4대강 개발계획의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위원회의 성공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APEC 기후센터 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역발전 기틀 다지는 민선 5기 기대한다

지방자치 민선 5기가 오늘 출범한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민의 선택을 받은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4년간의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한달 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이 각 지자체별로 진행돼 왔다.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4년간 추진할 각종 정책과 사업 점검에 나섰고 단체장들이 취임식을 간소하게 치르는 등 어느 때보다 주민 위주의 행정을 다짐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민선 5기 단체장들에게 부여된 가장 큰 책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6%대로 전망되고 있으나 지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민선 5기 성공을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하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광주·전남지역은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자체 재정만으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굼직한 현안사업들이 좌초 위기를 맞지 않도록 재정확충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요구된다.

내년도 국고 확보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4대강 사업 여파로 중앙정부가 긴축 재정을 펴면서 유채부터 광주·전남 국고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선거 과정에서 불합침이 있었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 성공하려면 단체장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부정부패, 불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상사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지방의회 역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민선 5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대학 교수들이 거액의 연구비 횡령이러나

순천대 현직 교수 2명이 구속기소되고 교수와 납품업자 등 2명이 불구속기소된 이번 연구비 횡령사건은 최고의 지성으로 일컫는 교수사회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들 교수는 연구비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연구비를 마치 '눈먼 돈'인 양 치부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검찰조사 결과 해당 교수들은 납품업자와 짜고 기차제 등을 허위로 구입하거나 그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14억5000만원에 이르는 연구비를 횡령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반 모 교수는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납품업체와 짜고 무려 11억원을 빼돌렸으며 또 다른 교수는 지도 학생이 차린 납품업체를 통해 '검은 거래'를 해왔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빼돌린 돈으로 빚을 갚거나 유혹비로 탕진했으며 일부 교수는 지역 유흥가에서 거액을 뿌리고 다녀 '교수가 맞느냐'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교수들과 업자들 사이의 고액이권 유착이 낳은 도덕적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조차 터부시되는 이런 사건이 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은 만연된 비리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대학 측의 책임이 크다. 대학 측이 연구과제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수 절차 없이 비용을 지급하는 등 연구비에 대한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비리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연구비 횡령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만큼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외부 전문가가 감시하는 옴부즈만제 도입이나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배치 등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고의 지성인 집단이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맡긴 격'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믿을 곳을 없다.

無等鼓

작가 이옥수가 쓴 '푸른 사다리'는 서울 서초동 법원단지 앞 꽃마을에서 사는 초등학생 6학년 윤재의 이야기다. 윤재네 가족은 빚은 없고 쓰러지면 가득한 이곳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삶을 이어간다.

어느 날 칠거반원이 다친다.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리던 아버지였지만, 동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한다. 아버지는 결국 다리를 다치고, 가족은 보상금으로 남은 상가의 옥탑방으로 옮기게 된다. 이사 거던 날, 윤재는 옥상으로 향하는 사다리 위로 넓고 푸르게 펼쳐진 하늘을 본다.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사다리다.

'북괴귀선'의 작가 헨리 밀러도 사다리 이야기를 썼다. 우화소설 '사다리 아래서의 미소'다. 어릿광대 어거스트는 사다리 꼭대기에 걸터앉아 사다리 아래서 손가락질을 받는 하층민이지만, 사다리 아래 올라가면 박수 갈채를 받곤 했다. 어릿광대의 삶이 오래 가지는 않았다. 어거스트는 문득 우스꽝스런 분장으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삶이 행복하기는 의문을 갖고 서커스단을 떠난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 한 채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택한 것이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수정안을 관철하지 못한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세종시 총리'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인 그인 만큼 수정안이 폐기된 마당에 그냥 있기는 어려울듯하다. 정씨는 "사실상의 사퇴 표명이다"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 총리도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지난 한 독학생에서 서울대 총장을 거쳐 만지시상 일인자의 권좌까지 올라갔던 그지만, 정씨 바로 아래 사다리에서 만난 시민은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어서다.

누구에게나 사다리는 있다. 더 높은 곳에 닿고 싶은 욕망이며, 이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묘기는 끝났다. /김주정 여론매체부장 jiwnews@

정운찬의 사다리



기고

최태근



최근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 납치 및 성폭행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 등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하교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다.

원인은 학년별, 자율학습 등으로 하교시간이 서로 달라(12~18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 때문이며 여기에 거론하기조차 끔찍한 어린이 대상 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

CCTV 설치, 보도 개설 및 무단횡단방지 펜스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및 걸터포장, 지그재그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사업에 매년 약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또 등하굣길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등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어린이를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는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

따라서 등하굣길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Walking School Bus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

어린이 안전, 보행 도우미로 지키자

한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등하굣길 보행 안전도우미(Walking School Bus)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실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실시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가 70% 이상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보호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와 함께 등하교함으로써 어린이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고 그 동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예방 효과에도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서울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하굣길을 인솔하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에서도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 반경 300m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기타 상호 협조는 물론 녹색어머니회 등 어린이 안전관련 민간단체의 도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추가 지정이 필요한 곳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여기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해 나간다면 어린이들이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끄럼포장, 과속방지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투자 보다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 효과가 탁월한 CCTV를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방범, 산별방범, 주정차 단속, 교통통제 CCTV를 통합해 관리한다면 설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CCTV 통합 관제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되어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 재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전남도 도로교통과장>

매년 줄어드는 쌀소비... 다양한 식품 개발 필요

아이들과 함께 쌀로 만든 자장면이라는 큰 안배분이 붙어 있는 식재료로 갔다. 그 식당 내부에는 강진기 고향이라는 사장님의 인사말과 함께 강진 쌀로 직접 뽑은 면발이라는 안내문도 함께 있었다.

쌀로 만든 면은 쫄깃쫄깃하고 탄탄한데다가 밀가루처럼 불지도 않아서 좋는데 특히 위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좋다고 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쌀 찜빔, 쌀 탕수육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

요즘 쌀이 많이 남아서 걱정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음식을 개발한다면 밀가루 대신 우리 쌀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1인당 쌀 소비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전라도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맛있고 훌륭한 쌀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했으면 한다. ▲정점순·목포시 대영동

의료 칼럼

정효영



신혼부부가 임신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왜소한 체격의 부인은 1년 전부터 월경량이 줄고 드문드문 생리가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다. 그러나 초음파와 호르몬 검사 결과 부인의 나이는 20대 후반이지만 난소의 나이는 40대 후반이나 볼 수 있는 조기폐경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골다공증, 유방발육부진, 배란장애를 겪으며 임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사춘기 이후 누구나 겪는 월경불순이 젊은 여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짐작케 하는 단적인 예다.

오로부터 5~7년 후까지는 월경간격이 길다가 그 후 짧아지면서 규칙적인 월경간격이 된 후 평균 40~42세까지는 규칙적인 월경을 하게 된다. 월경기간은 시작해 24시간 안에 50% 정도가 나오게 되고 지속되는 기간은 2~6일이다. 월경혈의 용량은 30ml 정도가 보통이며 20ml 이하이거나 80ml 이상이면 비정상이다.

또한, 월경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로 이차 성징의 발현이 없이 13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 또는 2차 성징의 발현은 있으나 15세까지 초경이 없는 월발성

월경-여성 건강의 신호등

월경이란 가임기 여성의 자궁내막이 주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 증식, 수정란의 착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신이 되지 않으면 자궁내막이 저절로 탈락되는 현상이다.

월경 간격은 평균 28일이고 21일에서 35일 사이 간격이면 정상으로 간주하나 월경 간격은 난포의 성장 발생속도와 질에 의해 결정되므로 주기적인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불임이나 습관성 유산 혹은 기능성 자궁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마른 체형이나 비만한 여성의 경우에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어 월경간격이 길어질 수 있다.

정상적인 월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뇌의 시상하부-뇌하수체 전엽-난소-자궁 축의 호르몬 분비가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무배란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은 불규칙한 월경양상을 보이거나 월경시 과량의 출혈을 보일 수 있다. 무배란성 월경은 20세 미만과 40세 이상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초경

무월경과 과거 월경이 있었던 여성에서 6개월 이상 월경이 없거나 기왕의 월경 주기의 3배 이상의 기간 동안 월경이 없는 속발성 무월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2차 성징이 없는 원발성 무월경의 경우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내과질환과 동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또한, 무월경 환자 중에는 체중 증가와 얼굴의 여드름을 동반하는 다낭성난포증후군이 대표적인데 배란장애로 인해 프로게스테론의 분비 없이 에스트로겐만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경우 자궁내막암 또는 유방암의 위험이 있고 불임증 및 습관성 유산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간질환, 신장, 당뇨, 갑상선 질환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는 즉시 적절한 내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임신을 원할 경우 배란유도를 해야 한다.

결국, 월경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당연한 생리과정으로 무시해 지나쳐서는 안 된다.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신체변화이므로 월경 다 이여리를 작성해 월경이상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시월병원 산부인과 원장)

슈퍼마켓 상품 인도 점령... 단속 강화해야

남구 진월동 상당 바로 밑 도로변에 그 유명한 '덧밭'이라는 대형 연해점이 있다. 이 덧밭은 산더미같은 수많은 물건들을 인도와 도로변에 쌓아 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 또 이 상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차량과 물건 구입 차량이 이종으로 도로를 점유해 5~6m에 불과한 좁은 도로는 항상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된지 수년이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남구청 교통지도' 차량까지 이상점 앞 도로에 상당한 시간을 주차 한 후 사라진다. 교통지도 차 내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통체증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남구청 교통 지도과는 도로교통법을 선별적으로 지도하지 말고 적법하게 공평하게 지도하기 바란다. ▲정중순·광주시 남구 방림동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창간
대표전화 222-8111
www.kwangju.co.kr